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정 영 길  
원광대 교수,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 위원회 운영위원

판소리 용어 가운데 귀명창이란 게 있다. 명창은 국악에서 노래를 특출하게 잘 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귀가 명창이라니?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할 뿐 발성기관이 아니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역설의 미학을 보여주는 조어다.

단순한 애호가와 차원을 넘어 일정한 식견을 갖추고 판소리를 제대로 향유할 줄 하는 사람을 명창에 비유한다고 해서 귀명창이라 부르지만 실은 명창을 뛰어 넘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훌륭한 소리꾼의 노래라도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문화는 특출한 소수에 의해 비롯되지

## 지역문화원과 귀명창

만, 이를 즐기는 다수의 소비자에 의해 정착되고 확산된다. 단순한 소비 차원을 넘어 우리 일상에 파고드는 생활화 과정을 통해 문화는 꽃이 핀다. 귀명창의 성원에 힘입어 문화가 파급되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명창 경험을 해 볼 기회가 사실상 없다. 모든 문화 행사가 중앙 위주인 데다 서울에서 흥행에 성공한 것만이 지방 순회공연을 기획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도 사실상 먹자판이 대부분이다. 고급문화 체험을 통해 감성 근력을 키울 기회가 거의 없는 셈이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러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문화의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의 귀(耳)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훈련을 해야 감응력이 향상된다. 문화를 향유하는 데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 자체가 박탈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방 문화는 중앙에 종속된 영원한 변방 문화가 아니다. 또 하나의 다른

중앙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긴 안목으로 개성 있는 고급 지방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 자원이 축적돼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지방 문화의 제자리 찾기는 자치단체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지역마다 유사한 기념품을 짓거나, 축제 행사를 남발하여 재정만 축내면 희망이 없다. 이런 행태가 고착되면 지방의 문화 귀명창이 줄어들어 지방 문화 융성을 요원하게 한다.

이것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지역 문화원들이 향토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향토사 자료를 수집

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학 연구의 현상성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 역할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양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원이 그 소비층을 두텁게 하는 산파역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치거나 문화 귀명창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및 기술의 작명을 물론 특허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등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미래는 문화가 여지(興地)며 산업 생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기술과 상품이 이성 아닌 감성에 호소해야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사회복지에 버금가는 문화 보급 사업을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백범 김구 선생이 희망한 문화강대국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 허구한 날 시위 문화만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피아노 잘 치는 대통령, 시 낭송을 즐기는 총리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때가 되었다.

### 종교칼럼

##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한 노고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의 찬가를 읽으며 아웨(하남)와 이스라엘을 생각했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생각했으며 각 개인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사랑하는 너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너를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이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구름도 걷혔소/ 꽃피고 새들의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요.”

애인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산과 들을 산책하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 지은 노래를 부르며 하루속히 애인 만나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인생의 봄을 맞이 합니다. 신앙의 봄을 맞이 합니다. 사랑과 희망의 찬가를 부릅니다. 나뭇가지들이 죽은 듯 앙상하게 만들었던 겨울도 지나 갔습니다. 초목도 뿌리를 동결시켰던 겨울도 지나 갔습니다.

유독 이번 겨울은 춥지 않은 대신 대설이 내렸습니니다. 아무리 겨울이 깊어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우리모두 인생의 봄을 맞이합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희소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 갑시다.

병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무직에서 직업을 얻고, 학업이 성취되고 사업이 성공되고, 이별이 만남되고, 부자유에서 자유 얻고, 구속에서 해방되고, 말할수 없는 고민이 해결되고, 불안에서 안정 얻고, 공포에서 평화 얻고, 공공 잃었던 열음도 녹고, 비도 그치는 화창한 인생의 봄을 맞이 합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광명의 햇빛으로, 냉정이 변하며 열정이 되고,

가슴에는 감격, 귀에는 소리, 눈에는 꿈, 그래서 믿음·소망·사랑이 넘치는 봄을 맞이 합니다.

격정 근심 걱정 탈고 얼굴의 주름살 활짝 펴고 마음 가득한 기쁨을 얼굴 웃음으로 나타내며 일어서서 영혼의 아가를 부르며 진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참 사랑은 물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물질주의의 영향 하에 ‘주고받는’ 실리적 삶을 철학으로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고전으로

로 보아 넘깁니다. 우리들은 사랑 참 순결이 안방에서 쫓겨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것만이 인정받고 통하는 세상이 벌써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봄을 맞아 자연의 신비를 눈으로 보며 귀로 들읍시다. 피부로 느낍시다. 그리고 감격을 찾읍시다. 생명의 약동을 가집니다. 이 봄에 이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영이고 시들은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재미와 거미 그리고 벌 같은 인생입니다.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게 재미 같은 인생입니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은 거미 같은 인생,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게 벌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벌 같은 인간이 되려 했습니다. 주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형제, 교우간 잃었던 사랑을 되찾고 그 사랑을 봄의 색깔로 장식해 여름숲으로 성장시켜 갑시다.

겨울이 지나갑니다. 비도 그쳤습니니다. 생명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가(雅歌)가 울려 퍼집니다. 꽃은 피면 지고 한때 푸르던 풀도 시들지만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 기 고

## 전통시장의 ‘맛있는 이야기’ 들려오길

무휴로 운영방식을 바꿨다. 다른 도서관과 달리 이곳에서는 책도 빌릴 수 있고 구매할 수도 있으며, 한편에 스타벅스가 있어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다.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아늑한 환경과 고급스런 인테리어에 반할 수밖에 없다.

도서관의 인기는 숙박과 식당의 호황,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는 대형마트의 시장진출 확대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전통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06년 25조이던 것이 2013년에는 19.9조에 그쳤다.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 등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4년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지속적 매출성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접근성이나 편의성, 그리고 대량공급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 대형마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전통시장은 먹거리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등 삼합을 앞세워 연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고 있고, 오메기떡을 대표 특화상품으로 발굴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이나 닭강정으로 유명한 ‘속초관광수산시장’, 삼겹살을 대표주자로 내세운 ‘청주 서문시장’ 등도 이러한 전략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상인 고령화에 따른 혁신추진 동력 감소와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공 사례 추가발굴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청은 남도 특유의 풍부한 맛과 다양한 음식을 활용해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고객이 즐겨찾는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하고자 지자

체, 시장상인, 청년창업가와 머리를 맞대고 있기도 하다.

시장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상인대학’의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시장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성공요인 전파와 대표 먹거리 발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과 지원사업에 ‘먹거리 특화’ 요소를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먹거리 관련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예비협동조합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상인의 레시피 개발을 위한 비평전수 컨설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남도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전통시장 육성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오랜 세월 지역민의 삶과 함께해 온 전통시장은 그 자체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어우러져 전통시장이 들려주는 맛있는 이야기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 社 說

##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대는 지자체 언제까지…

해묵은 고민거리이지만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낼 정도인 곳도 많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 도내 15개 군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를 못 줄 형편이었다. 지난해 14곳에서 이번엔 무안군까지 추가돼 15곳으로 늘었다. 22개 시·군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동구와 남구가 해당됐다.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 공장이나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지방세 수입도 증가할 텐데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예산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증진과 신규 사업을 염두도 내기 어려운 이유다.

지자체 공무원 예산은 2.5%, 전남은 3% 증가하는 데 그쳐 꼴찌를 면치 못했다. 부진한 예산 증가율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오는 4월경 확정되는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 도내 15개 군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를 못 줄 형편이었다. 지난해 14곳에서 이번엔 무안군까지 추가돼 15곳으로 늘었다. 22개 시·군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동구와 남구가 해당됐다.

지자체의 재정에 송통을 띄워 주기 위해서는 복지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정부가 인구 수 중심의 교부세 지원 기준을 고집 필요가 있다. 전남은 도시권과 비교해 주민이 적은 데다 복지 수혜 대상자가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고 고령 인구가 20.1%, 독거노인 비율은 6.1%로 가장 높아 복지 시책에 따른 행·재정적 경비가 많이 드는 만큼 더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기업 유치와 특색 있는 수익 사업 추진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근절 대책 없나

순천의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멋대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업자에게 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적발된 것이다.

순천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비리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관리비 횡령,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리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장, 공사업체 대표 등 13명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소장 서 모(70) 씨는 아파트 운영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2008년 1월25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인출해 횡령하고, 공사업체 6곳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 모(66) 씨와 관리소장 전 모(56) 씨도 2012년 3월30일부

터 2013년 11월29일까지 보일러 공사 면담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업자에게 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적발된 것이다.

관리비 비리는 이번에 드러난 순천의 일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만큼 단속 대상을 확대하면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

관리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입주자들이 관리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리비 사용을 통제·감시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관련 법규를 보완해 정기적인 감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입주자들의 관심과 자체 감시다.

### 無 等 鼓

얼마 전 라디오에서 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많이 알려진 우스개’라며 요즘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을 들려줬다. “재벌 2세 되는 게 꿈인데, 아버지가 영 도와주시질 않네요”라는 내용이었던 웃긴 했지만 마음이 영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SNS에는 금수저·은수저·흙수저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금수저로 인정받으려면 ‘자산 20억 원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 원 이상’인 집안에서 태어

되는 불운한 이들도 적지 않다. 수많은 종교와 문학·예술 작품들이 “불운하고 비참한 삶 속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깊이가 깃들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속삭여 왔다. 불교에서도 ‘번뇌가 깊어야 해탈도 크다’고 하지 않았던가. 불운 속에 삶의 깊은 뜻과 신의 소명이 숨어 있다는 말은 분명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행운은 행운이고 불운은 불운일 뿐이다. 삶의 깊은

의미를 알 필요조차 없는 크나큰 행운 앞에서 고상한 ‘삶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를 것인가. 거듭되는 불운으로 눈물 마를 날 없는 흙수저들에게 ‘삶의 의미’ 운운하는 ‘미시어구’는 잠시의 아픔을 잊게 해 주는 마약일 뿐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한 표’를 부탁하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 흙수저는 별로 없는 듯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살아봐야 알 수 있다’는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한다면, 적어도 ‘흙수저의 눈물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창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